

■ 일본 정부, 탈탄소전원 효율적 활용위한 GX산업입지 방침 논의

- 일본 정부는 'GX(green transformation, 녹색전환)2040비전' 수립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 입지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음.¹⁾
 - 일본 정부는 'GX2040비전' 수립을 위해 ① (에너지) 에너지 공급 확보 강화, ② (GX산업입지) 탈탄소전원 및 송전선 정비 상황, 새로운 에너지 공급 거점 등을 고려한 GX산업 입지, ③ (GX산업구조) 일본 내 GX산업 입지 추진, 이노베이션 구체화 및 사회 도입 가속화, 경제안보상 환경변화를 고려한 공급망 강화, ④ (GX시장)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등 탈탄소 가치가 평가되는 시장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
 - 일본 정부는 'GX실현을 위한 전문가 WG'을 통해 GX산업 입지에 대한 방침을 ①탈탄소전원 주변 산업 입지, ②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 입지 유도, ③일본 내 탄소·자원 순환 등을 제시하였음.
 - (탈탄소전원 주변 산업 입지) GX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기 쉬운 지역에 산업이 입지하는 것이 중요함. 일본의 경우, 재생에너지 공급에 적합한 지역이 편재되어 있음. 탈탄소전원(재생에너지, 원자력 등) 비중이 40% 이상인 지역은 홋카이도, 규슈, 간사이지역 뿐임.
 - (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 입지 유도) GX산업입지 구상시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, 콤비나트 연계 강화 및 반도체, ESS, 로봇틱스 등의 중요 물품 관련 공장의 집적 등 지역별 특징 및 기업 투자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.
 - (일본 내 탄소·자원 순환) 타이어 및 연필 등 화학제품은 탄소가 필요함. 이에 탄소원으로서 바이오매스 및 페플라스틱 등 재활용자원에 대해 지역별 탄소 공급 잠재력, 수송 비용, 최적의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하여 GX산업입지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.
 - 이에 일본 정부는 상기 방침을 고려하여 탈탄소전원 주변에 공장 및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정책 검토를 개시하였음.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잉여 전력의 효율적 활용 및 송전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됨. 일본 정부는 향후 산업 입지에 관한 규제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탈탄소전원 주변에 산업 입지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책 등을 검토할 것임.
- 일본 정부는 GX를 통해 탈탄소화 에너지 안정공급,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'GX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'과 'GX추진법' 및 'GX탈탄소전원법' 등에 의거하여 '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(GX추진전략)'을 각의결정하였음.
 - GX추진전략에는 'GX실현을 위한 기본방침'을 의거하여 GX를 위한 탈탄소 대응과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의 실현 및 실행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것임.
 - 'GX추진전략'은 ① 에너지 안정 공급 확보를 대전제로 한 GX를 위한 탈탄소 대응, ② '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' 실현·실행, ③ 진척 평가와 필요 시 수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
1) 内閣官房GX実行推進室, "GX時代の産業構造・産業立地の検討の論点", 2024.7.11.